

* 정답은 문항 옆에 붙어 있는 미주 번호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35) ④

(가), (나), (다) 세 작품의 시적 모티프는 모두 ‘이별’이다. 세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이별을 헤어짐 그 자체로 이해하기보다는, (가)는 불교적 구도를 통해, (나)는 끝없는 인연의 확신을 통해, (다)는 기다림의 의지를 통해 승화된 만남을 예비하는 것으로 극복하고 있다.

236) ①

㉠‘한 가지’는 한 부모를 뜻하는 말로 한 핏줄을 타고난 인연을 의미한다. (나)시에서 ‘동아뺏줄’ 또한 그러한 인연의 끈을 상징하는 시어라고 할 수 있다.

237) ①

(나)시는 ‘뫼라카노’라는 시어의 점층적인 반복을 통하여 고조된 시적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고, 각 연마다 말끝을 감추어 표현할 수 없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일상적 대화투의 말과 사투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이승’과 ‘저승’이라는 대립적 시어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는 삶과 죽음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는 효과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238) ②

(다)시의 <1>에서는 그대를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를 ‘사소함’으로 표현함으로써 역설(반어)적으로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②에서도 님을 가슴 깊이 묻고 있으나 ‘잊었노라’라고 표현함으로써 역설(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39) ③

<보기>의 내용은 지역이나 민족의 문화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된 작품에서 ①,②,④,⑤는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인 의미를 지니는 반면, ‘흰옷자라기’는 우리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40) ④

시적 화자의 태도나 심리를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해설

(가)의 화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무관심한 남편의 태도를 원망하면서도 임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임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헤어져 안타까워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④). (나)에는 경물이 시름없다고 표현되어 있고, (다)에는 배꽃을 비추는 달이 화자의 슬픈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41) ⑤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해설

(가)의 ‘잔월’은 화자의 결백을 믿어 줄 절대적 존재이고, (다)의 ‘달’은 화자의 슬픔을 더욱 심화시키는 존재이다(⑤).

오답 피하기

③ (나)의 달에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데 비하여 (가)의 달에는 임의 이미지와 관련이 없다.

242) ④

시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해설

(가)의 시에는 임금이 화자를 다시 불러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④)

243) ②

시적 표현 및 발상이 유사한 시구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해설

전제된 구절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구절도 당연히 부정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 즉, ‘~인데/이므로 ~하랴’의 논법으로 된 발상과 표현을 찾아야 한다. 원근을 모르니 당연히 소식을 알 수 없는 것과 곡식이 풍요로워야 할 가을에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봄에는 오죽하겠느냐하는 표현은 서로 유사하다.

244) ②

시의 흐름을 정확히 추리하여 적합한 내용을 유추하는 문제이다.

정답 해설

앞의 시행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인연이 끊어진 것 같지만 나는 임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있다고 했으므로 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여야 자연스러운 연결이 된다(②).

오답 피하기

① 누리 가운데 태어난 몸은 혼자 살아가는구나(동동), ② 임의 소식은 더욱 아득하구나(속미인곡), ③시집살이 노래, ④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한가롭지 못하다.(면앙정가)

245) ④

제시된 <보기>를 먼저 보고 그에 따라 지문의 내용을 정리해 가는 것이 좋다. 건지산에 있는 빨지산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기 때문에 야기된 갈등으로 인하여 외할머니는 큰방 출입을 하지 않게 되고, ‘나’ 또한 그렇게 된다. 그러나 구령이를 외할머니가 배웅해 주면서 갈등이 해소되는데,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은 바로 외할머니가 큰방을 출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46) ①

㉠에 나타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대화 양상을 보면, 먼저 할머니가 외할머니의 노고에 감사를 하고, 외할머니는 외할머니는 겸양의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몸 걱정을 한다. 그러지 할머니가 다시 한번 외할머니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와 같은 대화의 양상을 고려할 때, 밑줄친 부분에는 겸양의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방을 걱정해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247) ④

㉡은 작품의 결말 부분으로 작품 전체를 이끌어 가는 배경과 관계가 깊으며, 불신과 갈등의 역사인 6.25전쟁의 종결을 상징한다. 이러한 결말 처리는 작품에 여운을 주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싹트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248) ④

‘이제와 돌이켜보니’라는 구절은 과거에 대한 회상과 추측의 심리를 반영한 말이다. ㉢는 서술자가 할머니의 행동을 회상하면서 할머니의 심리를 추측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가 적절하다.

249) ②

<보기>에서 밑줄친 부분은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국문학의 특수성은 한국 역사나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연결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 내용은 한국의 역사적 상황, 제도, 가치관, 독특한 정감, 등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 양상에 대해 언급한 ㉡는 어느 나라의 문학에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편성에 가깝다.

250) ②

춘향이가 ‘땅을 한 길 넘게 파 놓고, 세 끼 밥을 해 먹을 수 있을 만큼 잔디를 쥐어뜯어 놓았다’는 것은 춘향의 처지를 과장되게 표현해 놓은 것으로 방자의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251) ③

<보기>의 핵심은 ‘영원한 사랑’이다. 그러나 ③은 반지와 거울을 주고받는 행위를 ‘관습에 따른 선물’로 이해했으므로 <보기>의 견해와는 다른 것이다.

252) ②

㉠에 들어갈 사설은 춘향이 헤어지기 싫어서 한 손으로는 말고삐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이 도령의 다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로, 한양으로 가기는 가야 하는데, 님이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은 이별과 거리가 멀고, ③은 방자의 입장, ④⑤는 춘향의 입장과 심리가 반영된 말이다.

253) ③

이 도령은 춘향과의 이별이 비통하고 괴롭다. 따라서 길을 재촉할 리도 없고 경쾌할 수도 없다. 단지 잦은물이 장단은 말이 달려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도령의 심정과 관련되는 경쾌함과 거리가 멀다.

254) ②

(나)에는 이 도령과 춘향이의 이별 장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방자와 향단이가 이별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연극으로 공연할 때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방자와 향단이가 이별하는 장면을 삽입하고 있다.

255) ①

‘애’는 창자를 뜻하는 옛말이다. 따라서 ②~⑤는 ‘창자가 끊어질 듯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의미로 ‘간장이 녹다.’와 의미가 통하나, ①의 ‘애꿎다’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어떤 일을 당하여 억울하다.’는 뜻으로 ‘간장이 녹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256) ④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가 개방됨으로 해서 집단 사이의 신비와 외경의 베일이 없어진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을 축복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개방으로 변질해 가는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역할 즉 위치 감각을 찾아야 한다. 즉 기존의 위치 감각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위치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257) ②

정보 사회는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즉 정보 사회라는 대상 자체가 옳고 그름, 또는 선과 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대응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② 역시 이런 관점에서 과학을 바라보고 있다.

오답 확인 - ①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의 유보, ③ 신중한 판단의 중요성 강조, ④ 대상의 효용성에 대한 확실한 판단, ⑤ 판단 불가. ⑤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뒷글과 ②의 관점은 인간의 대응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므로, 차이가 있다.

258) ④

여섯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정보 사회가 될수록 인문 교육이 필수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인문 교육의 필요성’이다. 이 인문 교육은 바로 위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를 정신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문단의 성격도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는 주지 문단이 아니라, 부연 문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259) ④

㉠의 ‘통찰(洞察)’은 ‘어떤 대상,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봄’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서, 어떤 대상의 외부적 사실을 눈을 통하여 감각적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를 지닌 ‘관찰(觀察)’이라는 단어와는 다르다. 그런데, ④에서는 ‘통찰’을 마치 ‘관찰’이라는 의

미로 사용하고 있어 용법이 바르지 않다. ④의 '통찰'은 '관찰'로 바꾸어 써야 한다.

260) ⑤

㉠에서는 정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⑤의 타자 연습은 단순 기능을 신장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정신적이고 창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확인 - ① 새로운 인간관, 사회관, 세계관의 모색, ②와 ③ 예술적 창작과 감상, 지적인 창의, ④ 도덕적인 재지향과 통찰 등과 각각 관련이 있다.

261) ⑤

이 글을 볼 때, 전통의 풍물놀이보다 이를 무대 연주 음악으로 바꾼 사물놀이가 더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사물놀이의 영향으로 풍물놀이의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62) ②

이 글을 바탕으로, 사물놀이에 대한 옹호자가 사물놀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반박할 때는 전통 음악의 창조적 계승, 대중성, 서양 음악과의 협연 등 사물놀이의 긍정적 측면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종합 예술'은 사물놀이보다는 풍물놀이가 가진 본질적 특성으로 '현대는 종합예술의 시대'라는 것은 오히려 주장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

263) ②

㉡에서 징과 팽과리는 쇠소리를 내고, 북과 장구는 가죽 소리를 내는 소리의 어울림을 통해 음양 조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즉 각각의 특성을 없애지 않고 그 특성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사물놀이와 풍물놀이에 적용한다면 사물놀이와 풍물놀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정체성을 살리는 가운데 서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64) ④

㉢'타성에 젖어 들고'는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버릇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타성에 스며들고'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버릇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과 바뀌 쓸 수 없다

265) ③

<보기>의 내용을 보면, 피아노와 사물놀이가 같이 연주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굿거리장단에서 휘모리장단으로 점점 빨라지는 것으로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치고 달고 맺고 풀고, 격렬한 반복'을 통해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춤과 발림,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열린 마당', 즉 동작에 관한 것은 <보기>에 나와 있지 않다.